

[TMTC 독후감 과제]_15기 전영선

첫 번째 책_약함의 선교(이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선교 훈련을 받고있는 지금, 나는 여전히 선교란 무엇인지,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선교의 실상을 알아가고,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선교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삶을 향한 막연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 책을 읽어내려가며 만났던 위의 한 문장이 마음에 들어와 박혔다.

어디로 나아가던 아무도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고 누울 자리조차 없어 말구유에 누워야 할 지라도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해내기로 결단하는 것. 이 결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교가 아닐까. 그리고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내게 던졌을 때의 답은 당연히 ‘아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나에게 ‘이방인’이라는 신분은 꽤나 큰 산처럼 여겨진다.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내신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긴한다.

에콰도르에서의 선교 사역 중에 있었던 과정과 감정, 그 당시의 생각들이 적힌 일기를 보니 아마도 이 책에 차마 다 적어내려가지 못한 시간들도 있으셨겠지 싶어 마음이 멍멍해졌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져가시고, 상황을 해결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어떤 재정적인 채움, 비자의 발급이나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녹아들어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선교사님을 변화시키신 일이며, 그렇게 변화된 이웃(선교사님)을 통해 에콰도르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것이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돌보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나의 변화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책_ 선교는 삶이다(이영)

에콰도르에서의 일기와 기도편지들로 이루어진 이 책에는 선교사님의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결과적인 선교의 모습들 너머에 어떤 치열한 과정이 있었을지 그 과정이 궁금해진다. 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과정의 끝에 담기는 선교사님의 고백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셨다.” 인 것 같다. 나를 돌아보고,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해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시는 시간을 보며 진정 선교사라는 부르심은 나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지어가기 위한 초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때, 인간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다. 은혜를 누렸을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상황’에 대한 고백이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는 감사를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은혜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격없음과 한없이 비천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선을 가진 자는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다.

선교는 삶이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겠지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선교를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거창한 사역의 결과나 영적인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삶의 관계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선교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